

# 4장

죄는 선택이다



## 제 4 장

### “죄는 선택이다”

-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
- 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 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 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 16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 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 IV-4. 형제들 사이의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 4:1~17

##### 1. 다툼의 근원과 자기추구 4:1~4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신자들 가운데서의 싸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 근원적인 동기를 날카롭게 지적해 준다. **모든 분열과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기심이다.** 한편 “싸움”은 규모가 큰 불화(wars)를 의미하

고, “다툼”은 규모가 작은 충돌(fighting)을 의미한다. 이기심을 채우는 일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할 때, 다툼과 논쟁은 끝이 없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장애물로 이해한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헤라클레스가 좁은 길을 걸어 가던 중 사과처럼 생긴 것이 땅 위에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부수려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순간 그것은 아까보다 곱쟁이로 커졌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약이 올라서 그것을 더욱 세게 밟고 또 몽둥이로 내리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더욱 커졌고, 마침내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그제야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놀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자리에 아테네가 나타났다. “그만하면 됐어요. 이것은 싸움과 말다툼의 정신이지요. 도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처음 모양으로 있지요. 그러나 더불어 싸우면 그건 한없이 불어나요.”

**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 함이요”**

이기심은 저지하지 않으면 탐심의 죄가 된다(출 20:17). 야고보는 여기서 개인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어되지 않은 욕심이 종종 살인에 이르게 한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한다(마 5:22).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또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으며 다만 너희 자신의 부패한 견해와 성향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실망만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증오는 살인만큼 흉악한 죄이다. 힘과 폭력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참된 행복과 만족은 성취되지 않으며, 참된 만족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이 지속된다.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기본적인 욕망들을 채우려 할 때, 실망, 시기, 다툼이 뒤따르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교인들은 기도로 동역하기를 소홀히 함으로 그들의 참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일하고 있지 않았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즐겨 주시고자 하신 것을 즐겨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의 응답은 간구자의 본심과 기도자의 정신 모두에 달려 있다(눅 11:9).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즉 부적당한 동기과 아마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간구하는 것들이 자기의 정욕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 같은 기도는 비록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는 결심 없이 기도하는 자는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요일 5:14).

### 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한 남자와 여자들이여” (KJV): 이것은 실질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조를 버린 배교자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것이 “부자들”에 대한 그들의 편애와(2:1~13), 그리스도인 “행함”에 대한 그들의 무시와(2:14~26), 그들의 성급하고 무분별한 말과(3:1~10),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다툼” 과(3:14~18), 금지된 것들에 대한 그들의 역제 되지 못한 “욕심” 때문에(4:1~3)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명 “세상과 벗” 된 자를 지시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세상과 벗된 자’ 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중독이 되어 거기에 노예가 되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 와 비교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이라 칭함 받은 것과 대조된다(2:33). 성도의 길은 두 갈래이다. 곧 하나님과 벗되는 길과 세상과 벗되는 길이다. 세상에 속하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곧 하나님과 진리와 영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과 동정과 감정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전자는 알곡으로 여물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고 후자는 쭉정리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목적과 행동에서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는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약 4: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 6:24) - 그리스도인이 비밀 결사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복음전도 620p).

“나는 둘째 천사가 교회의 타락을 선언한 후에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나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들이 찔림을 받지 못한다. 육적인 마음이 미워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뿐이다. 공중 전도는 사단의 진노를 자아내고 죄

인들을 전율케 하며 마음과 양심에 다가오는 심판의 두려운 실재를 심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

“의의 전신갑주 밖에는 아무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얻게 해 주는 것은 없다. 사단은 한 몸처럼 교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쪼개는 명백한 진리 대신에 강조되고 있다. 세속적인 정신과 우정은 하나님과는 상극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세속적인 정신을 거스려 본래의 단순함과 능력 가운데서 증거 된다면 즉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남아 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충실한 종들이” 라고 천사가 말했다” (초기 274p).

“바벨론은 “음녀들 … 의 어미” 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고상한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 얻는 은혜로운 결과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고 그들과 사귀고자 한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에 대하여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쟁투 382p).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후 6:17).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 (요일 2:15)라고 말씀하신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약 4: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안일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부조 458p).

## 2.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권면 4:5~10

### 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께서서는 종종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 으로 묘사한다(출 20:5; 신 32:16; 시 78:58; 겔 36:5).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그의 강한 사랑을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과 비교한다(고후 11:2). 교인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우리의 나뉘지 않은 애정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영을 슬프게 한다. 인간의 질투심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질투심은 오직 그분의 자녀들의 안녕을 위한 그분의 열렬한 관심을 반영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경의 언급들은 “헛된” 말들이 아니다.

###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본문의 “그러나” 는 그 의미상 ‘더구나’ 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 하면 5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

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쾌락을 선택한 “교만한 자” 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은혜를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인 품성으로 계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제공하신다(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 삶의 시험들을 대면하기에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고후 12:9).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은 크기로 여기지 않으신다. 유한한 인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는 범죄의 등급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이런 저런 잘못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죄도 작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작은 것으로 여기고 처리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큰 범죄로 간주하시는 바로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 주정뱅이는 멸시를 받고 그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을 듣지만 그와 반면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약 4:6)신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반대하는 선언을 잘 아는 자들은 그 죄가 얼마나 불쾌하게 취급되는 것인지를 즉시 알게 될 것이다.” (5중언337)

##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함과 이기심의 위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두어야만 한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시험도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하신다(고전 10:13).

야고보는 여기서 열 가지 일련의 명령들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세상과 “벗” 된 위험에 빠지기 쉬운 모든 교인이 잘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1)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6절)를 주시기 전에 “겸손한” 사람은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복할 것이다. 순복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히 12:9).

(2) **“마귀를 대적하라”** : 바울은 마귀의 “궤계” 를 성공적으로 대적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를 설명한다(엡 6:13~17).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신 승리는(마 4:1~11)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소망 130)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유혹에 대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는 사단을 떨며 도망치게 만들 것” (소망 131)이기 때문이다. 확고한 결심은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만약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지성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마음을 만질 수도 없다” (원고 2, 1893).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면 그는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원고 2, 1893).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교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는 별로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활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저항이다. 그는 그의 능력의 한계와, 만일 우리가 그를 저항하고 대항하면 그가 참으로 쉽게 정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성도도 그의 모든 사자들을 대항하고 남는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성도는 월등한 힘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

사람이 이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 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사단은 왔다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 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 (엡 6:16)라” (5증언 293p).

죄와의 싸움—그리스도의 모본은 승리에 대한 유일의 희망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하여 저항하는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험의 싸움에서 영혼의 적을 무찌르신 주께서는 인류를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을 정복하셨다. 승리자로서 그는 당신의 승리의 우세(優勢)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강하심에 연합하

고, 우리의 무가치함이 주의 공로에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견인 불발한 주의 능력의 지지(支持)를 받아서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유혹의 압박을 저항할 수 있으며, 주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 시조(영문), 1880년 3월 4일

“나는 악한 천사들이 영혼들을 탈취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싸움은 맹렬하였다. …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감지할 때, 사단은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위험을 자각하고, 그리하여 고뇌와 열심으로써 능력을 얻고자 예수께 의지할 때에 사단은 그의 포로 하나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불쌍한 영혼을 포위하기 위해 그의 사자들의 증원을 요청하며, 하늘 빛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의 주위에 흑암의 장벽을 구축한다. 그러나 만일 위험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인내하고, 의지 없고 힘 없는 가운데서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긴다면 예수께서는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 힘센 천사들을 증파하신다.

**사단은 그의 힘센 대적인 예수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데는 견디지 못한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전율하는 까닭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군이 공포에 질린다. … 그리고 전능한 천사들이 하늘의 병기로 무장을 갖추고 기진 맥진한 채 쫓기는 영혼을 도우려고 나올 때에 사단과 그의 군대는 자기들이 패전한 것을 밝히 알고 퇴각한다.”** — 리뷰 앤드 헤랄드, 1862년 5월 13일

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3)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 이 명령은 사단을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비밀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 시지만(행 17: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대하신다(고후 15:2; 시 145:18; 사 55:6). 우리는 믿음으로(히 7:25), 그리고 참된 회개로(호 14:1; 말 3:7),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4) **“손을 깨끗이 하라”** : 손을 씻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상징이었다(사 1:15,16; 신 21:6; 시 24:4; 마 27:24). 바울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 하나로 “거룩한 손”을 명시한다(딤후 2:8).

(5) **“마음을 성결케 하라”** : “두 마음”이란 선과 악, 주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를 품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F. B. 마이어 박사는 그가 어떻게 승리의 비결을 배웠는가를 자세히 말하였다. 그는 큰 무리의 어린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점점 더 다루기 어려워졌다. 그는 자기가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며 자기가 완전히 다스리지 못해왔던 분노를 터뜨릴 참이었다. 자신의 실패가 부끄러웠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극에 달하자 그는 마음 속으로 외쳤다. <주여, 당신의 인내를> 즉각적으로 그를 진정시키는 그리스도의 인내심이 그의 마음에 푹 떨어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분노와 번민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그 모임을 축복된 결과로 이끌 수 있었다. 그 경험이 너무나 뚜렷하고 결정적이었으며 도우심이 너무나 완전해서, 그는 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그 후에는 언제나 같은 공식을 사용했다고 간증하였다. <주여, 당신의..!>라는 말을 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곳에 대입시켰다.

그는 외로울 때는? <주여 당신의 교제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에는? <주여 당신의 평온함을!>  
 불순한 것이 유혹할 때에는? <주여, 당신의 순결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마음에 떠오를 때에는? <주여, 당신의 사랑을!> (J. 오스왈드 샌더스)

“만약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 버린다” (편지 43, 1892).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리뷰 1889. 12. 3).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순결하심과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

자신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앓을까,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앓을까 염려함으로 조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 나오는 순수한 빛이 죄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들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선하고 안전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하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편지 40, 1901).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를 가까이 하라. 그가 그대를 가까이 하실 때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항하신다. 용기를 내라. 이는 그 원수가 이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고 92, 1901).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 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 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편지 13, 1893).

“일상 생활에서 그대들은 불의의 놀라움과 실망과 유혹을 만날 것이다. ...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설을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이 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오! 하나님여,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에게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의 가정에 있어서 참된 가정의 띠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도록 도우소서” 라고.” ( Letter 105, 1893.)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6) **“슬퍼하며”** : 죄인들은 그들의 상태가 참으로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참된 영적상태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권면이 라오디게아교회에 주어진다(계3:17). 진실한 모든 교인은 나뉜 벗됨의 상태와(4:4) 내적 다툼과(3:16; 4:1) 정욕(4:1~5) 때문에 “슬퍼” 했어야 했다.

(7) **“애통하며”** : 이것은 회개로 이끄는 가장 진정한 외침이며, 야고보가 예리하게 책망한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하도록 의도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고후 7:10)이기에 “애통” 에는 희망이 있다.

(8) **“웃음”** : 그들의 “정욕” 혹은 쾌락을 두드러지게 한 웃음, 이 환락은 거짓 만족과 안전을 장려하는 마약이 되지만, 반면 그 영혼은 항상 파멸 직전에 있다. 그러나 야고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우울한 슬픔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근심”** : 의미상으로는 ‘낙담’ 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였으며 눅 18:13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모습, 곧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단어이다.

### [참된 회개의 슬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진리의 성화케 하는 능력으로 쾌활한 정신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농담과 희롱의 말, 경박한 짓,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 등은 옳지 못한 일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

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편지 13, 1893).

####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 “낮추” 는 사람은 단지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거짓 겸손을 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는 진실할 것이다. 외적인 행동이나 내적인 동기도 주께 숨겨지지 않는다(대하 16:9; 히 4:13).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뉘지 않은 충성심에 관한 다양한 권면을 요약한다. 정직한 사람은 인격적인 비참함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되며, 그분은 항상 기꺼이 용서하신다(사 57:15).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생에서도 어느 정도 높이실 것이지만, 내생에서는 더 완전하게 높이실 것이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다. 요나단과 침례 요한처럼 “자기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은 영원히 영예로운 보상을 거둘 것이다.(교육 156, 157p).

#### [용서받기 전에 마음을 낮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 (원고 11, 1888).

“참된 증인의 증언은 절반도 유의되지 않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

한 그 증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솔히 여김을 받아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증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정결해질 것이다.

…천사는 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이미 본, 크게 흔들림을 당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마음의 변민으로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보호의 천사들은 배로 늘어났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주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질서 아래 빈틈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은 그들이 겪은 무서운 투쟁과 그들이 통과한 괴로운 싸움이 어떤 것이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심한 마음의 변민을 뚜렷하게 나타낸 그들의 모습은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났다. 그들은 승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는 감사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이 흘러나왔다. …

나는 갑주를 입은 그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나는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매여 있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지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던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는 열성적으로 그 진리를 붙들게 되었다.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다. 오직 진리만이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진리는 생명보다 더욱 가치있고 귀중했다. 그들은 진리를 얻고자 주리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세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1증언 180)

#### 4. 비방을 하지 말라는 권면 4:11,12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

## 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비방하지 말라”** : ‘비방하기를 멈추라’ , ‘혐담하기를 멈추라’

야고보는 이제 자기가 섬기기로 고백한 주님께 바칠 교인의 의무에 대한 권면에서 돌이켜, 교회를 괴롭히는 어떤 구체적 죄악에 대한 그의 훈계를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부족하면 필경 사람 앞에서도 비슷하게 부족함이 나타난다. 동료교인들을 비난하는 습관은 극악한 이기심을 드러내며 흔히 교회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 : 판단하는 자는 그 법이 자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론한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난받는 형제를 보호할 법은 없으며 자기의 비평적인 정신을 정죄할 법도 없다.” ,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 야고보는 교인의 그리스도 고백과 매일의 행함 사이의 불일치에 대하여 다시 책망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법의 관찰권과 무관하게 비평적으로 흠잡는 사람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열망한다. 종종 흠잡기는 비평적인 사람 자신의 개인적 행동 기준이나 자신만의 성경해석들에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도록 만든다.

\*콜롬비아 북쪽에서 멕시코 만으로 뻗어나간 갈라진 땅에 사는 꼬아지로 인디언의 성경은 '사함을 '죄는 지나가게 만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지나가고 다시 더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이보리 해안의 빠울리 족은 '죄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멕시코의 후이츨 족은 '하나님께서 죄를 취해 가시는 것'이라 한다.

라이베리아의 케펠 족은 보다 인간 주체적인 관점에서 사함을 '죄에서 돌

아서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죄를 멸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이다.

##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영적인 문제에서 오직 입법자만이 판단할 수 있다. 오직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품성을 판단할 자격이 있으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다(고전 4:5).

야고보는 사람이 동기를 식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조한다.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율법을 위반한 자이며, 한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헐뜯도록 조장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교만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서로 형제지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를 구원하기도 하시며, 거역하는 자는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고통에 완전히 무각감한 병을 오늘날 갱글리뉴로파디(ganglioneuropathy)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치명적인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무각감증'이라는 병이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딤후 4:2)'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Walter B. Kihnigt)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한다” (부조 385).

#### 5.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권면 4:13~17

####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도는 사업 경영을 위한 정상적인 계획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언급한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한다. 더욱이 그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계획한다(잠 27:1).

‘매튜 헨리’ (Matthew Henry)는 본문이 의도하는 세 가지 죄를 설명했는데 ① 세속적이며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는 것, ② 이 세상의 일로 인한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 ③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이 미래에 대해 화려한 기대를 가지는 것 등이다.

####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너희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뇨?’ 하는 것이다. 생명의 실상보다는 생

명의 짧음을 강조한다. 즉 인간의 생명은 거의 나타나자마자 사라지기 시작한다. 생명은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대상 29:15; 욥 8:9; 시 102:11; 약 1:10,11). 안개, 또는 연기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 그리고 불안정성 등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쓰였다. 인생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시 102:11에는 “꽃” 로, 욥 8:9에는 “그림자” 로, 약 1:10에는 “꽃의 꽃”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잠언 기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 27:1)고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눅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를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눅 12:20)고 물으신다.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불확실하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언대로 세상의 거민들이 아니다. 그들은 낮선 나라에서 이른바 하룻밤만 머물고 있다. 우리의 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처소에 있다. 인생은 금세 사라져 버리는 증기에 불과하다. ... 사람이 동료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이로워지고자 하는 바로 그만큼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무감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무서운 손실이다” (4중언 490).

####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우리 뜻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한다. 즉 우리의 모

든 활동과 계획은 하늘의 주관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을 계획하고 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한다. 헬라인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신의 허락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하고 말했다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항상 너희 마음속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런 일도 하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들이 장차 되어야 할 모습과 좀 더 나은 행실을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 16.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이란 단어는 본래 ‘방황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기 의존적 교인들은 마치 미래가 그들의 수중에 있으며 성공이 자신들의 영특함의 소산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자랑하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는커녕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대담하게 계속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한다. 이런 식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며 루스벨의 정신과 유사하다(사 14:13; 겔 28:14~18).

## 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현대인의성경]약 4:17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바로 전 구절의 문제, 즉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특별히 언급한다. 생명의 불확실성과 하나님께 내맡기지 않은 인생의 비극에 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즉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곡된 믿음은 단지 지식만을 신뢰하며 참된 믿음이 요구하는 행위들을 피할 때 그 거짓됨을 드러낸다. 이는 또한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의 의무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이기도 하다.

**“죄니라”** :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변명은 게으른 종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에 불충분한 핑계가 될 것이다(마 25:27). 알려진 의무에 대한 고의적인 회피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이다.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아들들 중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절대 금주주의자(teetotaler)로 후에 목사가 되었다. 이 형제는 청년 시절 심리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어 상담에 응했을 때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당신이 금주주의자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하는 각각 다른 설문을 받았는데, 형제의 대답은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하는 대답이었다고 한다. 형은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아 버렸고 동생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싸워 새 삶을 개척한 것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다만 극복하느냐, 주저앉아 버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신이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David Brinkley)

“빛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빛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할 빛이 주어지지 않

왔기 때문이다” (1증언 116).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도록 유혹할 수 있을 때 사단은 기뻐 날뛸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승리를 얻게 된다. 그가 사단이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것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획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고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부조 420).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부조 420p).